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활동적 노화와 재사회화

배재윤¹

¹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Active Aging and Resocialization through Leisure Activity of North Korean Women's Defectors

Bae, Jae-Yoon¹

¹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leisure through the North Korean Women's Defector choir. To this end, eigh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participate as members of North Korean Women's Defectors choir and one who is a NGO staff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addition, non-verbal data were collected by non-participation observation of the North Korean women's Defector choir's rehearsal and choral performances, and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results. First, the North Korean Women's Defector Choir healed North Korean Defectors' trauma and depression with the peacefulness of singing and chorus. Second, the performance of the North Korean Women's Defector choir contributed to recovery by raising the low self-esteem of North Korean Defector. Third, the North Korean Women's Defector choir, composed entirely of North Korean Defectors,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self-help group and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 network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Fourth, the North Korean women's choir was like a sanctuary where North Korean Defectors could inspire a sense of belonging as members of South Korean society and rest at any time. The North Korean Women's Defector choir showed the aspect of active aging through leisure activit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female members. And the North Korean Women's Defector choir ultimately contributed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by realizing resocialization through leisure activity. Leisure activ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leisure activities. Accordingly, with reference to the results and discussions of this study,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reparation of leisure activity support plans for them in the future.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 women, leisure activity, choir, active aging, resocialization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여성, 여가활동, 합창, 활동적 노화, 재사회화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e, Jae-Yoon

E-mail: baejaeyoon@kordi.or.kr

Received: February, 10, 2023 Revised: March, 14, 2023 Accepted: March, 22, 2023

I.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법률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을 말한다. 지금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3,834명으로 이 중 남성이 9,478명(28%), 여성 24,356명(72%)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은 2019년까지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감소하였다(통일부, 2022).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추이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선불리 예견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신분이 난민과 다를 바 없음을 고려할 때 향후 남한행(남한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들은 입국 후 관계 기관의 합동신문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로 신병이 이관되고 여기서 남한사회 적응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12주 동안 심리안정, 남한사회 이해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12주간의 교육 참여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하나원 수료 후에도 상당 기간 거주지 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록 전술한 것처럼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 일원으로 적응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의 구조와 체제가 확연히 다른 새로운 사회로의 재사회화(Resocialization)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문화차이(文化差異)에서 비롯된 적응 지연과 부적응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님에 틀림없다(Iso-Ahola & Park, 1996; Hibbler & Shinew, 2002; Glove, 2004).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이 문화적 측면에서 여가활동과 관련 있음에 주목하였다.

송영민과 이광옥(2013)은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 여가활동이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도(문화적응)를 높이고 긍정적 감정 고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문화적응이 궁극적으로 사회적응 및 정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승일, 송영민 및 이광옥(2015)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활동형 여가, 사교형 여가, 가족형 여가, 개인형 여가, 스포츠형 여가와 같이 다섯 가지의 여가 유형이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중에서도 스포츠형 여가와 활동적 여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결국 위 두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사회적응의 ‘촉매제’로 역할을 규정하며 남한사회 적응에 기여가 큰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외에도 김은정과 김형곤(2012)은 북한이탈주민의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을 거론하며 탈북에 따른 생존자 죄책감(Survivor guilt)이 여가활동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생존자 죄책감이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핵심적인 내적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 같은 제약이 먼저 극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용일과 서성용(2017)은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이 남한사회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며 반대로 문화적 주변화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이 문화적응에 긍정적

기제로서 작동함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을 돕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자아존중감의 증진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선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이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문화적응, 사회적응, 삶의 질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써 문화적응 차원의 여가활동 장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공통적 특성에 기반한 여가활동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이탈주민은 문화충격(Culture shock) 수준의 이문화에 노출된 사람으로 자문화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은 문화적응의 일환이자 생존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사례발굴은 이들의 문화적응을 돕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첨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중 탈북여성합창단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 합창단(탈북여성합창단 M의 사례, 이하 탈북여성합창단)은 2015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돕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열린학교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였다. 창단 당시에는 2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주간의 노래교실을 통한 아트 테라피(Art therapy)의 취지로 개설되었으나 참여자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합창단을 창단하게 되었다. 그 후 탈북여성합창단은 40여 명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주 1회 이상 정기모임인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합창단원은 주로 50세 이상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지휘자와 반주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합창단 운영과 관련된 실무는 북한이탈주

민을 지원하는 NGO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여성합창단원들은 주 1회 이상의 합창 연습과 공연 준비에만 집중하면 되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일반적으로 합창단은 흔한 여가활동에 속하지만, 북한이탈주민 합창단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까닭에 여가활동으로서 합창(단)과 그 효과를 고찰한 연구(노인규와 강경선, 2019; 박언수와 김영미, 2020; 이현정, 강빈나 및 김수지, 2020; 윤영배와 유준호, 2015)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으로서 합창(단)에 대한 연구(Heo, Lee, Im & Bae, 2022)는 드물었다. 그런 면에서 탈북여성합창단은 그 자체로서 독특한 사례임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이 여가활동으로 합창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합창단과 같은 조직의 형태로 여가활동을 꾸려나간 사례가 없었기에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 중 매우 희소한 사례로 손꼽힌다. 특히 탈북여성합창단이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50세 이상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은 여타의 합창단과는 분명히 차별된 특징이다(이영선, 구혜완 및 한인영, 2011).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으로 구성된 탈북여성합창단이 이들의 삶에 어떤 경험과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여가활동이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여성합창단 단원을 통해 합창단 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 경험을 확인하고 이 활동에 부여된 여가활동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탐색하였다.

II. 연구방법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는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기술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연구방법이다(Creswell,

2007). 본 연구에서는 단일 사례로서 탈북여성 합창단에 주목하여 이 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 참여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여성합창단이라는 여가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단원들이 이 활동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단일) 사례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체험을 종합 분석하는 데 특화된 질적 사례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탈북여성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자 가운데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 사례로 지목된 탈북여성합창단의 전체 단원은 총 40여 명에 달하지만,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따라 8명의 단원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탈북여성합창단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자이다. 둘째, 탈북여성합창단의 일련의 활동이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에 상당부분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셋째, 탈북여성합창단이 소속된 NGO의 기관 및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Stebbins, 2001)에 상응한 여가활동 적극성이 검증된 자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탈북여성합창단의 활동기간,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적응 유경험자, 활동 진지성에 대한 관계자의 추천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탈북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NGO의 직원으로 창단 시점부터 합창단에 관여한 담당자 1명을 보조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합창단의 운영 상황과 단원의 활동 양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9명(주 연구 참여자 8명, 보조 연구 참여자 1명)으로 이들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핵심 자료는 일대일 또는 일대다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으로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연구 참여자 8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탈북여성합창단 가입 동기와 이유 및 목적, 활동 경험과 제약, 합창단의 특징과 단원들과의 관계, 남한사회 적응 영향 등)된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선호를 우선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별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90분(1시간 30분)으로 자료 수집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때 종료하였다. 모든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별 면담을 마친 후 지체하지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성명 (가명)	나이* (출생연도)	탈북, 입남 연도	입남 경로	남한 거주*	합창단 참여 기간*	특이사항**	
1	김미선	56세(응답거부)	2008년 입남	북한-태국-중국-남한	12년	2년	유방암	
2	이영미	63세(1958년)	2012년 탈북	북한-중국-남한	7년	4년	우울증	
3	허지민	76세(1945년)	2004년 탈북	북한-중국-남한	16년	4년		
4	합창 단원	최정화	78세(1943년)	2007년 입남	북한-중국-남한	13년	4년	
5	강만옥	70세(1951년)	2009년 입남	북한-중국-태국-남한	11년	2년	백내장	
6	류지희	74세(1947년)	2008년 입남	북한-중국-베트남-캄보디아-남한	12년	2년	허리 디스크	
7	김옥희	57세(1964년)	2005년 입남	북한-중국-남한	15년	3년	늑막염, 우울증	
8	유은서	61세(1960년)	2009년 입남	북한-중국-베트남-캄보디아-남한	11년	1년	족저근막염	
9	스태프 조재원	58세(1963년)	탈북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NGO의 직원(탈북여성합창단 담당자)					

* 연구 참여자의 나이, 남한 거주, 합창단 참여 기간은 2019년 기준

**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건강상 특이사항

않고 전사하여 언어적 자료와 비언어적 자료(연구 참여자의 표정, 말투 등)를 동시에 자료화하였다. 그 외에도 탈북여성합창단이 소속된 NGO를 방문하여 합창단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살펴보고 실제 합창 공연에 대한 비참여 관찰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여가활동 현장을 모두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파일(Data file)로 정리 후 보관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의 전형적인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심층 면담 전사 파일의 텍스트(Text)와 메모(Memo)를 모두 읽고 1차 코딩(Coding)을 시행하였다. 이어서 단일 사례로서 탈북여성합창단과 이 활동에 참여하는 단원들의 경험을 맥락적 차원에서 기술하였다. 그 후 연구 참여자가 탈북여성합창단이라는 여가활동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에 대해 범주화하고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의 관점에서 패턴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담의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인 비참여 관찰 자료는 현장상황을 데이터 파일화한 기록을 참고하여 특정 사례에 대해 배우고 지식을 구성하는 "자연주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Stake, 1995)를 시도하였으며 여기에 연구자의 해석을 첨가하여 주제화하였다.

4.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모든 자료는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통해 엄밀성을 확보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NGO의 담당자를 통한 멤버 체크(Member checking)으로 신뢰성을 보장받았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 전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여

연구 참여자 권리보장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노출 예방을 위하여 동의 받은 사안 외 모든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여 연구자와 접근이 불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모든 연구 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 과정 전반에 있어 보안을 유지하는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각별히 경주하였다.

Ⅲ. 결과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여가활동인 탈북여성합창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활동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과 의미는 네 가지 범주로 정리되었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는 ‘노래가 주는 평화로움’이다. 두 번째 주제는 ‘합창 공연과 자존감 회복’이다. 세 번째 주제는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Network) 형성’이다. 네 번째 주제는 ‘남한사회 소속감 확인 및 고취’이다. 위 네 가지 주제로 도출된 맥락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이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1. 노래(합창)가 주는 평화로움: “평안(Inner peace)”과 “치유(Healing)”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NGO에 의해 운영되는 탈북여성합창단은 주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가진다. 이 모임은 주로 합창 연습을 위한 것으로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한 모든 단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탈북여성합창단의 모임 장소는 NGO에서 마련해 제공하는 공간으로 합창 연습을 위해 사용된다. 특징적인 것은 이 공간의 최대 수용인원을 고려해 합창단의 규모를 결

정한 것이다. 즉 NGO에서 마련한 공간의 물리적 크기가 한 번에 약 4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어 합창단 역시 40여 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단원들은 이 공간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모여 합창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단원들에게 있어 합창 정기 모임은 북한에서 누리지 못한 순수 여가활동으로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우리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 저는 탄광에서 살았거든요. 탄광 안에 기업소에 속한 이런 노래나 하고 그러니까 수령님 탄생일, 김정일 탄생일 그 때면 노래하고, 소조가 있어요, 그런 거만 하지. ... 먹고 살기 바쁘는데 언제 그런 데 나가서 노래 부르겠어. ... 여가 생활이란 건 모르죠. 그저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영미, 63세, 2012년 탈북)

“거기[북한]는 다 김일성 칭송하고,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 노래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찬송하는 노래죠. 김일성, 김정은 찬송하는 노래죠.” (김옥희, 57세, 2005년 입남)

연구 참여자의 증언으로 확인된 북한에서의 여가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생활고로 실제 여가선용의 기회도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여가제약에 관한 선행연구(김은정과 김형곤, 2012)에서도 북한에서의 여가활동에 실질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고 극단적으로는 ‘여가빈곤(Leisure poverty)’의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여가제약 및 여가빈곤의 경험은 남한사회에서의 여가참여에 있어서도 낮은 적극성을 보이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과 극복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탈북여성합창단에서 활동하는 연구 참여자들 역시 북한에서의 긍정적 여가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남한에서 체험한 긍정적 여가경험의 사례(탈북여성합

창단)로 여가선용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노래를 부르면서 얻은 심신(心身)의 안정’은 이들이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을 계속하는 대표적 이유로 손꼽았다. 이는 탈북여성합창단을 연구한 선행연구(Heo et al., 2022)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노래할 때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노래를 통한 심신의 안정은 이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 제3국 체류(경유), 남한 입국이라는 생사가 걸린 여정으로 트라우마(Trauma)가 생긴다(김연희, 조영아 및 전우택, 2010).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 남한행 과정에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심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허성호, 최영진 및 정태연, 2008). 그런 면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동반되는 노래 부르기가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준다면 어떤 여가활동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위안을 얻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노래를 통한 심신의 안정과 위안이 탈북여성합창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된 이유일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노래는 몸과 마음을 평안(Inner peace)하게 해주는 활동으로 탈북여성합창단은 그 활동이 이어지는 구체적 계기이자 동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노래하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평안과 이로 인한 심신의 안정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여성합창단이라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핵심적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게 아트 테라피로 노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일단 오면은 심리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지셨고 즐거워서 오는 거예요.” (조재원, NGO 직원 / 합창단 담당자)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을 지속하는 주요한 이유는 노래라는 행위에서 유

발되는 치유(Healing)로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 및 남한행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었다.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세부적인 증상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사가 오가는 상황을 겪으며 생긴 트라우마는 그 자체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탈북 및 남한행 과정에서 형성된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건강상 어려움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를 합창이라는 노래하는 행위로 심신을 다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두산 밑에서 내려오는 산골물 밑은 물살이 쉼이 없어요. ... 물의 흐름 따라서 사각선으로 건너야 해요. 나도 이번에 건너면서 배웠어. 물은 여기까지 오는데 몸이 탁 뜨더라고. 지금 하라면 못하지. 총까지 쏘니깐 더 무섭지.” (허지인, 76세, 2004년 탈북)

“중국에서 4년 살았는데 그 땅에서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내가 올 생각 안 해요. ... 한국에만 오면 가족들 다 멸살한다. 자식들이 다 붙잡혀 죽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국 올 생각 안 했는데 중국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없었어요. 공안만 오면 따라가 숨고, 떨고.” (강만옥, 70세, 2009년 입남)

“중국 공안에 잡혔어요. 그래서 중국 감옥에 1년 있었어요. 중국 감옥은 바닥이 타일이예요. 엄청 차요. 내복 한 벌만 입혔어요. 브레지어 하고 다 뺏겼어요.. 얇은 내복 하나 입히고 하니깐 너무 힘들었죠. ... [중국에서 복송 후] 다시 탈북해서 한국에 나왔어요.” (김옥희, 57세, 2005년 입남)

“친구가 브로커 알선해줘서 베트남으로 해서 캄보디아로 해서 이태가지고 난 여기

로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하지. 정말 이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아이 왔다라면 북한에서 죽었을 게야.” (류지희, 74세, 2008년 입남)

또한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남한에 홀로 있어야 하는 외로움을 탈북여성합창단이라는 여가활동으로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역시 탈북 및 남한행으로 발생한 트라우마로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전형적 증상 중 하나이다. 연구 참여자들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남한사회 정착에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소희 등, 2021). 그러나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을 기회로 노래하게 되면서 우울감(증)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라면 겪게 되는 고독과 외로움을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탈북여성합창단은 ‘노래로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활동’으로 의미가 있었다.

“내가 억눌려 있던 거 노래로 다 풀어 버리고 좋죠.” (김옥희, 57세, 2005년 입남)

“우울했던 게 이이를 두고 왔잖아요. ... 열한 살에 두고 왔는데 이제 서른 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그 자식은 머리에서 한 순간도 안 잊어져요. [중략] ‘내가 굳이 살아 뭐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우울증에서.” (유은서, 61세, 2009년 입남)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랑 같이 오다가 잡혔어요. 중국에서 감옥에서부터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9살 이었어요. 1년을 못 봤어요. 북한 보위부에서 나는 가고, 개는 애라고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그 이후로 못 봤어요. 한국에 와서 집에 소식을 전해보니깐 내 대신 애를 소년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래가지고 개 때문에 우울증이 왔죠. 내가 많이 우울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치유하려고 ○○○[탈북여성합창단]를 한 거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중략] 명절 같은 때 혼자니깐, 그때가 너무 지금도 힘들어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탈북여성합창단] 가서 노래를 부르니깐 치유 받는 거지.” (김옥희, 57세, 2005년 입남)

“그 주민등록증 해준다는 소리 듣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수돗물도 이렇게 하면 더운물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찬물 나오고, 전기도 온 밤 틀어도 누가 말하는 게 없고. ... 그런 걸 느끼니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내 혼자 잘 먹고 내 혼자 잘 살자고 내 여기를 왔다’ 생각하고 빨리 나도 돈 벌어 갖고 딸 데려오려고 정말 많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될라 돈 손에 쥐는 거 또 홀 사기 당하고. 그 다음에 몸은 아프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리 집이 11층인데 떨어지고 죽자고 한 몇 번을 ... [중략] 여기 다니면서 내가 우울증도 다 없어지고, 어쨌든 즐거워요. [중략] 저는 마음속에 치유가 많이 됐고.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내 정말 죽자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계속 내려다본지 몇 번 된지 몰라요. 내 여기 떨어져 홀 죽어야지. 숨만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죽어야 되겠는데. 내 이런 마음 많이 먹었는데 여기 [탈북여성합창단] 다닌 후로부터 내 있잖아요. 전혀 안 했지요. 전혀 없었어요.” (이영미, 63세, 2012년 탈북)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으로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경험한 것으로 말하였다. 이들은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이 자신들을 노래하게 하였고 노래하는 행위를 통해 심신의 안정(Inner peace)과 나아가 치유(Healing)가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물론 탈북에 따른 상처와 아픔이 합창단이나 노래 부르기로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탈북여성합창단원들은 녹록치 않은 남한에서의 삶 가운

데 노래가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준 활동으로 여겼다. 이러한 이유에서 탈북여성합창단은 그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여가계약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 여가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여가경험이 남한에서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성은 참여자의 새로운 여가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 면에서 탈북여성합창단은 여가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필요(남보영 및 신자현, 2022)에 의해 지속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는 사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합창 공연과 자존감 회복: “또 다른 나의 발견”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남한사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에 희망도 있지만 걱정과 불안도 크다. 특히 사회문화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은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장명선과 이애란, 2010).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계·의료 급여와 정착금 및 각종 장려금 등이 해당된다(통일부, 2022).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립을 돕는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수료 직후부터 시장으로 나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제활동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여성합창단원들 역시 북한에서의 직업을 살려 경제활동을 하기보다 가사도우미, 청소

원, 영양보호사 등 이전과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사 그런 쪽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50살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컴퓨터나 배우고, 좀 하는 거 많이 없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인터넷 좀 배워가지고 할라 그랬는데, 나이도 또 50이고, 그리고 어쨌든 자꾸 몇 번 봤는데 불합격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휴, 저래 그만 둔다’ 그래서 ‘내 뭐 이 나이에’ 하고서는 그냥 식당 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 몇 년 일하다가 건강이 좀 안 좋고 이터다나니깐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유은서, 61세, 2009년 입남)

“내가 제과제빵 학원을 거기를 가서 6개월 배우고 나왔는데 취직이 나이가 벌써 마흔 네 살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파리바 [파리바게트], 뚜르킨지[뚜레쥬르] 뭐 거기는 젊은 애들로 받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있지, 다 뚜껑이 또 열렸잖아요. [중략] 이게 취직이 안 되니까 엄청 있지, 뚜껑이 팍 열리더라고요. 취직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김미선, 56세, 2008년 입남)

“일은 여기 오자마자 가정집 보모 했어요. 중국에서도 그 일 했거든요. 그제 배운 재간이 그 재간이고 그러니까.” (류지희, 74세, 2008년 입남)

“요양보호사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피부 미용사 관리했어요. [중략] 돈을 벌어놨다가 투자하다가 다 망했어요. 사기당하고, 그때 다 정리했어요.” (김옥희, 57세, 2005년 입남)

“제가 한국에 와서 만 2년, 횡수로 3년 동안 병원 청소를 했어요. [중략] 170만, 180만 원. 다른 교대까지, 또 야간교대까지. 돈 얼마라도 더 받겠다고. 피를 삼키며 했어요. [중략] 텃새가 얼마나 심한지. 먼저 온 사람들이, 특히 북한에서 왔다고...” (강만옥, 56세, 2008년 입남)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이전과 다른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사도우미나 청소 노동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식당 일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간병인이나 영양보호사로 일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일들은 단순 노무직(단순 노무종사자)이었다. 이들이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바로 위와 같은 일들로 나름의 포부와 희망을 품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통일부, 2022)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61.3%가 경제활동에 참여 중이나 취업자의 직업유형은 단순 노무종사자가 2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경제활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중 겪은 차별과 홀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들은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나 일을 하더라도 차별과 홀대가 있었던 것으로 말하였다. 이는 주로 단순 노무종사자로 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직업상의 공통적 애환으로 동일 직군 내 임금 및 처우 차별이나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상호 간의 하대도 포함된다. 즉 북한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남한에 왔지만 녹록치 않은 삶의 현장에 실망한 것이다. 무엇보다 직업상 자신이 선호하는 일과 실제 종사하는 직업군과의 괴리는 이 같은 실망감을 주는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남한사회 정착에 따른 전반의 어려움이 더해지며 연구 참여자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남한사회 정착이 쉽지 않음을 몸소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부수적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인식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창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

어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에 참여 중인 연구 참여자에 의하면 합창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기회로서 남한사회 내 혼란스러운 자기 정체성을 상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가진 남한사회 일원으로 비록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함을 깨달았다. 즉 경제활동에서 경험한 구별짓기로 인하여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음을 체감하고 좌절감을 겪게 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탈북여성합창단은 남한사회 정착의 어려움을 합창이라는 여가활동으로 표출함과 동시에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드러냄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따라서 탈북여성합창단은 이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는 유의미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저희가 노래는 좀 못 하더라도 공연하는 곳에 많이 내세웠어요. 저희 자체 행사도 내 보냈지만, 다른 데서 저희가 국내 유일의 탈북 여성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라고 하다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데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노래는 사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본인들 프라이드 [pride]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중략] 지금은 입소문을 내면서 내가 물망초 합창단이라는 되게 자긍심이 있어서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죠.” (조재원, NGO 직원 / 합창단 담당자)

“작년에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보니까, 우리도 여기 와서 무대에 올라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긍지감이 생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중략] 우리는 자부심이 생기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공연한다면 들떠요.” (김미선, 56세, 2008년 입남)

“내가 단원이라는 긍지감. [중략] 값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긍지감이 있어요.” (류지희, 74세, 2008년 입남)

“아, 나도 이런 무대에 올라설 수 있구나. 그게 제일 좋았고 ‘이야, 나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힘들게 와서 죽고 싶...’ 왜 그 전날에 죽자고 마음먹었던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노래도 할 수 있으면 더 좀 잘해보고 싶고 그래요. 좋아요. 한번씩 무대에 올라섰다가 그 날은 너무 행복해요. [중략] 우리가 탈북 여성들, 이제는 이렇게 많이 나서서 대중 앞에 나선다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처음엔 싫더라고요. ‘탈북’, ‘탈북’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이 힘이거든요, 내한테. 우리 탈북여성합창단 이제는 대중 앞에 나서서 얼마지 힘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탈북여성합창단이라 하면 신경이 안 나요. 더 좋아요, 당당하고.” (이영미, 63세, 2012년 탈북)

“내가 그 무대에 섰을 때 어떤 감정이냐면은요, 우리는 새터민이다. 우리는 북한사람이지만 이렇게 잘 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두 가지...” (강만옥, 70세, 2009년 입남)

위와 같이 합창 공연과 같은 무대 경험은 이들의 자존감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차별화된 공연 장소에 있어서는 ‘행복하다’라고 표현될 만큼 긍정적 여가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면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해외에서의 합창 공연은 이들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탈북여성합창단의 단원으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합창 공연을 한 것은 남한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로서 의미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존재

였다. 물론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해 이들의 삶이 주목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역시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기에 이들은 주로 음지에 있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대중 앞에 서는 일은 흔치 않았는데 탈북여성합창단을 통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선 것이다. 이러한 합창 공연은 이들의 혼란스러운 정체성 가운데 자존감을 높이고 남한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언제 북한에서 이런 무대 올라서보고, 언제 이런 드레스 입어보겠어요.” (이영미, 63세, 2012년 탈북)

“너무 좋죠. 뿌듯해요. 내가 정말 북한 땅에 있으면 내가 정말 이런 무대에 섰을까. 솔직히 말해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이 무대에 선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중략]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봤으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왔다고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요. 나라 반역자라고, 나라 배반하고 갔다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한테 정말 한 번 보여주고 싶어요.” (강만옥, 70세, 2009년 입남)

“무대에서 나가보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요즘 같으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000합창단에 대해 다 알아요. 주변에서 교회에 가면 ‘000합창단 이번에 일본에도 다녀왔다’고 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알아주니깐 뿌듯하죠.” (김옥희, 57세, 2005년 입남)

흥미로운 것은 경제활동과 문화적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보다 남한에서의 삶이 더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오게 되었는데 탈북 당시 남한행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입국하게 되었고 남한사회를 경험한 결과 새로운 터전으로서 남

한에 대해 평가할 때면 그래도 남한이 북한보다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한사회가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에 호의적이지 않고 유리천장과 같은 차별이 있더라도 인간다운 삶에 있어 북한보다 낫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만족도는 76.5%(통일부, 2022)에 달하는 것을 미루어보면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상쇄할 만큼의 매력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탈북여성합창단의 여가활동이 공연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는 차별된 경험은 연구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형성: “동병상련의 자조모임”

탈북여성합창단은 주 1회 정기 모임 외에도 공연 연습을 위한 모임, 개인적 친분에 기반한 소그룹 단위의 사적 모임 등이 동반된다. 특히 소그룹 단위의 사적 모임은 NGO나 운영진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수시 모임으로 볼 수 있다. 탈북여성합창단원들은 소그룹 규모의 수시 모임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강화하고 우정을 쌓는 모습을 보였다.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소그룹 모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삼삼오오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처음부터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탈북여성합창단의 초기에는 단원 간 갈등이 심해 정기 모임이나 공연 준비 모임 외 다른 모임은 부재하였으며 소그룹 모임을 상상하기 힘들만큼 단원 간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깐 쪽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끼리끼리 모이다보니깐

그런데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도 하고, [중략] 처음 1, 2년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서로 막 싸우고 그랬으니깐...” (김옥희, 57세, 2005년 입남)

“처음에 많이 싸웠죠. 목소리 또 높아 노니깐. 아니 싸우는 것도 싸우는 줄 알더라고요. [중략] 사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가려하잖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는 제 잘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건방워서 노래를 잘 익히지 못 했으면 [오른팔을 뒤로 치는 행동을 보여줌] ... 그러니깐 그것도 받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 나나 잘해라 이래요.” (류지희, 74세, 2008년 입남)

“오순도순 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고양이 발톱 빼들고 확 물듯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중략] 중국에서 여기 팔려가고 저기 팔려가고 이렇게 하면서리 또 죽은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하다니니깐 사람들이 성격이라는 게 보통 아니더라고요.” (김미선, 56세, 2008년 입남)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싸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한 번 욱 올라오면 그게 굉장히 과격해요. 그리고 평소 말씀하시는 것도 그 말투가 저희보다 훨씬 강하고 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 조심하신다고 하시다가 이게 불연 중에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싸움도 많았어요.” (조제원, NGO 직원 / 합창단 담당자)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는 언제든 표출될 수 있다. 이는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에서도 여과 없이 나타났다. 오늘날 탈북여성합창단의 모습과 달리 창단 후 한동안 구성원 간 갈등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노래와 합창, 합창단 활동에 관심을 갖고 탈북여성합창단에 참여했지만 단원 사이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를 원인으로 지목

하며 합창단 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을 거론하였다. 이 같은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단원들이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 숙제처럼 남아 있었다. 마침내 탈북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NGO에서는 단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소통캠프’라는 이름의 제주여행을 3박 4일간 다녀온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여행처럼 단체의 개입이 계기가 되어 단원 사이의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완화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뭘 그저 노래 연습을 하고 사람을 서로 알아가고 하는데 그래도 결을 안 주더라고요. 안주는 사람은 안 주더라고요. 근데 소통캠프 다니고 3박 4일 제주도 갔다 오면서 그나마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씩 싸악 열어가고 그런 게 있고...” (김미선, 56세, 2008년 입남)

탈북여성합창단 창단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단원 간의 갈등은 소통캠프를 기점으로 완화되었다. 그 결과 탈북여성합창단 내 단원 문화도 변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과 달리 단원 상호 간 대화도 많아지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동병상련의 처지를 공감하며 포용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 친분에 기반한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역시 소통캠프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가속화된 양상을 보였다.

“서로 나누어 먹고 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져오면 딱 자기 아는 애 있다든가 이러면 이래 주고, 그리고 그저 가방에도 넣고 나가서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이래 주면 쪼로로로 다 노나주고, 그저 그렇게 하고 같이 먹고 웃고. ‘북한이 뭐 개혁했다’ 이런 것처럼 여기[탈북여성합창단]도 개혁됐다 할까 그렇게 좋아졌어요, 사람들이.[중략] 언제부턴가 마음을 서로 열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하니깐 사람들이 서로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고난을 겪고 별난 고초를 다 겪었으니까, 사람

들이 성격이라는 게 이렇게 된 거니까.” (김미선, 56세, 2008년 입남)

“서로 카톡이 오고가고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우리 단체 방도 있지만, 또 뭐야 우리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개인 채팅도 하고 또 단체 채팅도 하고.” (강만옥, 70세, 2009년 입남)

“주중에도 자주 보고. 한 서너 번씩 만나게 되죠. 전화도 하고.” (허지인, 76세, 2004년 탈북)

위와 같은 변화는 탈북여성합창단의 운영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다. 탈북여성합창단 단원들은 홀로 탈북 후 갖은 고초를 겪다 남한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그런 까닭에 정서적으로 기댈 사람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했다. 탈북여성합창단의 단원 간 소통 강화는 동병상련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자조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의 구성원이 전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에서 더 공감되고 친숙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탈북여성합창단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더 큰 장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들은 단원을 ‘친구’나 ‘가족’이라 명명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았다.

“여기 오면 다 북한 사람들이니까 의사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집에 가면 그저 혼자서 있고 어디 일하러 나가도 혼자 따로 있고. [중략] 내가 여기 오게 되면 또 친구들이 많고 다 북한 사람들이니까. 이 누구 무슨, 우리 회령에 있을 땐 어쨌고, 우리 창진에 있을 때, 뭐 함흥에 있을 땐... 그제 내 마음에 친구들이니까 웃게 되더라고요.” (이영미, 63세, 2012년 탈북)

“여기 오니깐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사랑도 나누게 되고.” (허지인, 76세, 2004년 탈북)

“처음에는 같은 탈북민이라도 만나는 게 기가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보니깐 처음에는 친척 같은 분위기, 더 깊어져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만나면 서로 반갑고... [중략] 새로운 분들 오시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 탈북자니깐 반갑고 동생 같고 그렇게 좋죠.” (강만옥, 70세, 2009년 입남)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남한에 홀로 입국한다. 가족 단위 또는 지인과 동반 입국하는 사례도 있지만 흔하지 않다. 따라서 남한 입국 후 혼자 정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숙명이다. 실제로 하나원 수료 후 사회로 나온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사기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지지자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데(양문수와 이우영, 2019; 김성희, 정승호 및 김병연, 2022)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 역시 정서적 지지자의 부존재로 사기 피해와 같은 어려움을 피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취약성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말하였다.

“나도 탈북자들한테 속았던 말이에요. 이것들이 자기네들이 속으니깐 또 속인단 말이에요. 곧은 길로만 살아온 사람들이 그랬겠구나 하고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레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아이고.” (허지인, 76세, 2004년 탈북)

“돈을 벌어놨다가 투자하다가 다 망했어요, 사기당하고. [중략] 내가 혼자 정착하는데 정말 말 사기도 많이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아픔을 땅이 겪으면서 이제는 진짜 그 돈을 몇 억을 사기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김옥희, 57세, 2005년 입남)

이에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담당관을 배정하고 거주지 보호를 지원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도 정서적 지지의 갈급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특히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걱정과 불안 등 정서적으로 기댈 사람이 부재한 것은 제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혜진 등, 2018). 그러나 탈북여성합창단과 같이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돌봐주기를 자처할 때 비로소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하게 된다. 탈북여성합창단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서로의 사정과 처지를 헤아려주는 자조모임으로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네트워크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내 네트워크 형성은 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친구와 같이 믿을만한 사람의 존재가 중요했다. 탈북여성합창단원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믿을만한 사람들 즉 ‘친구’로 부를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홀로서기가 필수인 남한사회에서 타인과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동병상련 네트워크 구축(안혜영, 2007; 염유식과 김여진, 2011)은 믿을만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갈급함을 채워주는 정서적 지지의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남한사회 소속감 확인 및 고취: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탈북여성합창단은 남한사회 내 안식처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

들은 남한사회 내 지지가 기반이 없고 인적 네트워크 또한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여성합창단은 소속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였다. 연구 참여자에 따르면 남한 입국 이후에도 여전히 정체성 혼란에 시달렸는데 탈북여성합창단은 분명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여가활동으로 규정되었다.

“우리를 이민자로 하니깐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가 이민자인가? 이민자. 맞아. 어쨌든 국적을 바꿨으니깐 그 말이 맞는 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못한 말, 우리는 그저 남조선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이민이라는 건 다른 나라 이민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아직 적합한 말을 못 찾았지요.” (허지인, 76세, 2004년 탈북)

“되게 약간 이중적인 면도 있어요. 자유를 원한다 그러면서 규율을 그렇게 풀어주면 왜 우리를 가만히 두냐고 우리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가. 또 좀 이렇게 규율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다 해야 되냐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직 혼란이 있는 거죠.” (조재원, NGO 직원 / 합창단 담당자)

탈북여성합창단이라는 여가활동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남한사회 정착의 버팀목이었다. 이들에게 탈북여성합창단은 단순한 여가활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특히 혼자라는 고독감과 외로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등은 이들을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탈북여성합창단은 외롭고 쓸쓸할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남한사회 정착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으로 남한사회 내 소속감이 생긴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

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가 남한사회에서 인증된 NGO 단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자부심을 느꼈다.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사회에서 특정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려웠다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약한 연대감에 대해서는 권숙도(2018)의 연구에서도 명확히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탈북여성합창단은 특별한 애정이 느껴지고 이 공동체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안정과 보호감이 느껴지는 것으로 말하였다.

“그래도 합창단이 그 큰 면모를 가지고, 그래도 사단법인이 떳떳하잖아요. [중략] 이 단체의 특징이 탈북민들과 국군포로가족, 학생들을 돌봐주고 있는 단체다.” (최정화, 78세, 2007년 입남)

“단체가 탈북민의 엄마와 같은 그런 품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중략] 내 친엄마 같은 단체구나. [중략] 친엄마의 손길로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강만옥, 70세, 2009년 입남)

“친정집도 될 수 있도 있고, 내 집도 될 수 있고 그런 감이 있어요. [중략] 여기[탈북여성합창단] 오면 딱 본가 집에 온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감이 들어요.” (이영미, 63세, 2012년 탈북)

“내가 뭐 기뻐할 데도 없고, 계속 우울하고 이런데 지금 날 어쩔든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누워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누워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거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 희망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좀 잘해봐야겠다.” (유은서, 61세, 2009년 입남)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 활동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탈북여성합창단이 남한사회 내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껴진 이후 공동체

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애정도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합창이라는 여가활동에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활동보다 탈북여성합창단을 우선시하는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Stebbins, 2001)의 특성과 일치한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에 1년 이상 소속감을 느끼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 책임감은 개인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집에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오늘 한 곡목 배웠다 하면 반주자가 음원을 줘요. 그 음원을 주면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중략] 그저 길가다가 듣고, 버스 타면 듣고, 그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듣기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설 때는 ‘야 요 음에선 틀렸다. 요 음은 또 어떻게 길게 해야 되겠다’ 그걸 다 체크하죠.” (이영미, 63세, 2012년 탈북)

“길거리 다닐 때 이어폰 끼고. 그리고 집에서 또 거울 보며 연습해보고. 소리 내보고.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고 그래요.” (유은서, 61세, 2009년 입남)

“[합창 연습] 따로 하죠. 친구와 같이 어느 교회를 빌려서. 정기 공연을 앞두고 교회 같은데 빌려서 연습하고. 산에 운동가서 혼자 막 소리 내고 하죠.” (김옥희, 57세, 2005년 입남)

“... 진짜 내가 한 몫을 못 하면 진짜 안 되겠으니깐 집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매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최정화, 78세, 2007년 입남)

탈북여성합창단에서 개인 연습은 꼭 필요하다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합창을 위한 개인 연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합창을 위한 정기 모임 외에도 개인 연습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탈북여성합창단이 혼자 하는 여가활동이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하는 여가활동이기에 정기 모임에는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연구 참여자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경제활동이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생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합창단 활동을 위해 개인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경제활동 속에서도 합창단 활동에 꼭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합창단 활동이 매우 소중한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탈북여성합창단 연습을 위해 장거리를 오가는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단원으로서 소속감과 함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탈북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NGO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에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여가활동을 위해 장거리를 오가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기 모임에 참여하여 연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이를 합창단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 여기고 있었다.

“그저 15분 전에 도착해요. 화성 거기는 전철도 없어요. 버스 타고 오다가 전철 갈아타야 돼요. [중략] 금요일날은 무조건 모든 일을 다 죽이고 오후는 가서 일한다. 아침엔 여기[탈북여성합창단] 온다.” (이영미, 63세, 2012년 탈북)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탈북여성합창단은 남한사회 내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다. 그런 만큼 이들은 합창단 활동에 열심이었으며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사회 내 소속감을 주는 유일한 단체로서 탈북여성합창단은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터전인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사회 생활을 통해 직접 경험한 여러 형태의 불안을 탈북여성합창단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본능으로 여가활동을 통한 소속감 확인 및 고취는 남한사회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탈북여성합창단은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을 주는 소속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여가활동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삶의 버팀목이 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탈북여성합창단에 꾸준히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소속감을 통한 안정감을 경험함으로써 이 활동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였고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남한사회에서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믿을만한 단체로서 탈북여성합창단은 ‘여가활동의 장’뿐만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인 ‘안식처’로서의 의미도 부여된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연구 결과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탈북여성합창단은 취미생활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 여가활동이었다. 본 장에서는 탈북여성합창단이라는 단일 사례를 선정해 살펴 본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여가참여 대상 및 활동의 특성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1. 여가활동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탈북여성합창단에 참여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여성으로 5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여가활동을 통한 활동적 노화의 양상을 보였다. 활동적 노화의 일반적 정의는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노년의 삶을 주체적으로 보내는 것이다(이종선, 2015; 배재윤과 최보라, 2020; Koh, 2016). 그런 면에서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활동적 노년을 선사하는 여가활동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탈북여성합창단은 50세부터 60대는 물론 70대에 이르는 조직 구성의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탈북여성합창단은 실질적으로 고령자 여가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활동은 활동적 노년과 이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여성)합창단을 유일한 취미생활로 지목하며 진지한 여가의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를 감안할 때 탈북여성합창단은 활동적 노화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주목할 수 있다.

먼저 탈북여성합창단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은 심신건강의 차원에서 활동적 노화와 맞닿아 있다(오정수, 2017).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 입남 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 그런데 이들이 탈북여성합창단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한 것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특히 탈북여성합창단으로 활동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수가 고령자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치유의 효과는 여가활동이 주는 큰 장점으로 수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 입남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그 여파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남한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에 참여한 뒤 심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활동적 노화의 요소 중 건강한 노년(Healthy Aging)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배재윤, 2020). 다시 말해 고령자

의 여가활동은 노년기 심신건강과 직결되는데 탈북여성합창단에 참여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사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탈북여성합창단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여가활동으로 안전한 노년(Safety Aging)이 가능하게끔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여가제약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무엇보다 홀로 남한에 입국한 사실은 이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되게 한다. 그러나 탈북여성합창단은 여가제약에 시달리는 북한이탈주민을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고립을 완화하고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다. 물론 탈북여성합창단이 북한이탈주민의 여가제약 근본 원인 중 경제적 상황을 직접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 삶의 풍요로움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탈북여성합창단 단원이 전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여가활동 공동체보다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이 수월하고 정서적 교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결국 탈북여성합창단은 여가활동을 통해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활동적 노화의 기능을 수행하며 고립과 단절,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여가활동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활동적 노화는 여가참여 대상자의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심신의 돌봄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남보영과 신자현, 2022). 이러한 이유에서 5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여가활동이 중요한 것이다. 고령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새로운 여가참여 기회가 적고 적극성도 낮은 까닭에 여가활동을 통한 활동적 노화의 가능성도 적다. 이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단

체에 소속되어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여가 참여 지속성의 측면에서 유익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고령의 여성으로 탈북, 입남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개인적 상황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제외한 사회활동에 비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탈북여성합창단을 경험하고 여가활동의 자기 의미를 부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이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볼 때, 탈북여성합창단은 노년을 앞둔 또는 노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웰에이징(Well-Aging)이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 여가활동은 이들에게 있어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삶의 활력소이자 나아가 고립과 단절을 예방함으로써 활기찬 노년을 실현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탈북여성합창단은 모든 단원이 50세 이상 여성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여가활동은 트라우마의 치유, 자존감 회복뿐만 아니라 활동적 노화의 차원에서 활기찬 노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을 주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궁극적으로 남한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내 지지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입남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에 홀로 생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처지에 사람들과 소통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북한이탈주민이라 여긴다. 그래서 북한이탈

주민은 같은 처지에 있는 믿을만한 사람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은 그들만의 구별된 공동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지기반 형성으로 남한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탈북여성합창단은 탈북 및 입남한 여성들의 여가활동으로 대체로 자조모임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이들은 노래와 합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 특히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조언이나 노하우를 나누며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 면에서 탈북여성합창단은 노래와 합창이라는 여가선용의 목적으로 모였지만 동병상련의 자조모임으로 남한사회 내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지기반 형성의 기능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탈북여성합창단을 통해 형성된 단원 간 관계는 남한사회 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는 지지기반의 형성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보편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지기반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정착에 있어 지지기반이 전무한 상태이기에 새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내야 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남한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보호담당관을 배정하여 거주지 및 주변 안전과 신변보호에 나서고 있다. 엄태완(2007)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시 지원이 가능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 차원에서 배정된 지지기반은 친밀성이 낮고 의지의 수준과 정도가 제한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지지기반은 정서적 친밀성이 확보된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

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지지기반 형성에 유리하고 각자의 삶을 나누는 데 있어 부담감이 덜하다. 따라서 탈북여성합창단은 남한사회 내에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지지기반으로 남한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새로운 사회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탈북여성합창단이라는 여가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탈북여성합창단은 여가활동의 특성상 든든한 지지기반을 제공하며 동시에 남한사회 소속감을 심어주는 활동이었다. 탈북여성합창단은 남한사회 내 지지기반이 전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서 활동하는 단원에게 소속감을 심어주는 여가활동이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남한사회 소속감은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자 대등한 사회일원으로 자립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을 통해 남한사회 소속감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고취하는 기회를 얻고 있었다. 결국 탈북여성합창단의 활동적 특성상 합창을 할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연이라는 행위가 수반됨에 따라 이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소속감을 확인하는 기회를 수시로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내 대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었다(양계민과 정진경, 2005). 그런 측면에서 탈북여성

합창단이 제공하는 남한사회 내 소속감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남한사회 일원임을 당당히 밝히는 계기를 공공연히 마련해 주는 의미를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탈북여성합창단은 주로 고령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여가활동으로 지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탈북여성합창단을 단일 사례로 선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의 경험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여성합창단에 참여 중인 50세 이상 여성 북한이탈주민 8명과 합창단을 운영하는 NGO 직원 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탈북여성합창단이라는 여가활동을 어떻게 경험하였고 이 활동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탈북여성합창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가활동 대상 및 활동의 특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탈북여성합창단에 대한 네 가지 범주의 체험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러한 여가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활동적 노년의 실현과 남한사회 재사회화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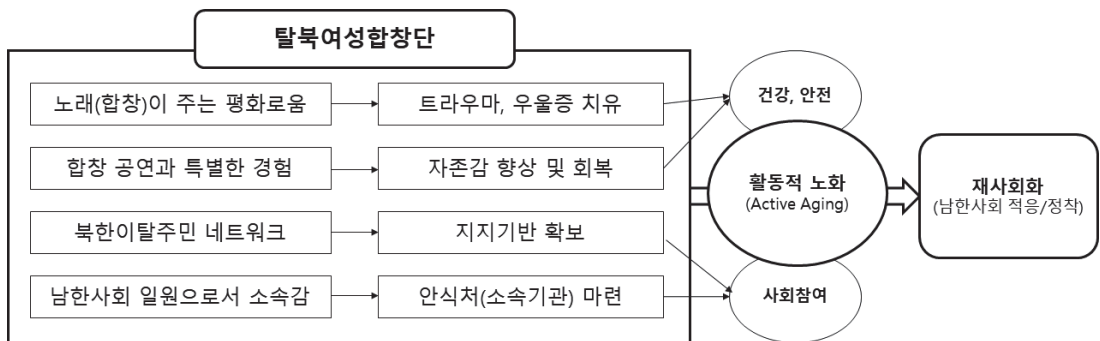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재사회화 과정

본 연구를 통해 정리한 탈북여성합창단에 대한 네 가지 범주의 체험적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노래와 합창은 심신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힐링(Healing)의 기제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트라우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탈북과 입남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노래와 합창으로 치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 입남을 통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에 노출되어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형성된 트라우마는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 채 살아야 한다. 따라서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심신의 안정을 유도하고 나아가 치유하는 기제로서 경험되고 의미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합창 공연은 ‘또 다른 나의 발견’을 돕는 이벤트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지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을 향한 편견(김혜숙과 오승섭, 1999)과 차별을 경험하며 좌절하게 된다. 이때 낮아진 자존감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힘듦과 부담, 반복된 좌절로 우울감을 유발한다(조영아, 전유탐, 유정자 및 엄진섭, 2005). 그러나 탈북여성합창단은 합창공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킴으로써 탈북 후 남한사회 내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었다(Heo et al., 2022).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탈북여성합창단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고 각자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믿을만한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남 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특히 북한과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로 인해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적응에 상당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Yeo, 2015).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단기간의 사회적 교육을 거쳐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믿을만한 사람의 존재, 즉 지지기반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탈북여성합창단은 비슷한 상황의 유사한 경험을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탈북여성합창단은 여가활동을 통해 구성원들과 교류하며 친분도 쌓고 서로 의지하는 자조모임 네트워크인 것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탈북여성합창단은 남한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확인하고 고취하는 여가활동이었다. 안타깝게도 북한이탈주민은 이방인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이들이 남한사회 일원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이 여가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합창단 운영의 주체가 남한사회에 있고 여기서 활동하는 것이 곧 남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든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남한사회 NGO 단체인 만큼 한 사회의 일원으로 여가활동에 참여 중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여성합창단이 주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에 안정감을 느꼈고 기댈 곳 없는 남한사회에서 유일한 안식처와 같은 포근함을 경험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리된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여성합창단은 다음과 같은 논의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탈북여성합창단 단원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이는 여가활동 참여자의 특성으로 언급할 수 있는데, 단원이 대부분 고령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에서 탈북여

성합창단은 활동적 노화와 연계하여 해석이 가능하였다. 다시 말해 탈북여성합창단의 대상자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여가활동의 결과가 활기찬 노년과 연결되는 면모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으로서 탈북여성합창단은 건강한 노년, 안전한 노년 그리고 웰에이징의 특성을 지닌 점에서 액티브 에이징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활기찬 노년의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탈북여성합창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을 돕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술한 탈북여성합창단의 총체적 경험은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에 기여하는 세부적인 요소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남한사회 정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남한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있어 여가활동이 주는 이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조기 적응과 정착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탈북여성합창단의 사례처럼 여가활동 대상자적 특성이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여기에 활동적 특성을 부가하여 새로운 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더욱 섬세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문승일 등, 2015; 차현일, 2016).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탈북여성합창단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희소 여가활동 사례에 주목한 점에서 차별된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한 남한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활동적 노화와 사회적응에 관한 심층 논의를 시도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 중에서 희소 사례에 주목한 점은 본 연구만의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고찰함에 있어 흔하지 않은

특정 사례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심층 고찰은 가능했으나 사례 자체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특수 대상의 특별한 여가활동의 사례로서 탈북여성합창단은 그 자체로 눈에 띄지만,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 활성화된 여가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 지원에 참고해야 할 사안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마련에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남한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이 정책 당사자의 욕구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후속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양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은정, 김형곤(2012). 북한이탈주민의 여가제약. *관광학연구*, 36(6), 167-188.
- 김연희, 조영아, 전우택(2010). 북한이탈주민 정신 건강 문제 유병율과 영향요인: 2007년 입국자 중심으로. *統一 政策 研究*, 19(2), 141-174.
- 김용일, 서성용(2017). 새터민의 여가활동에 따른 문화적응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레저연구*, 29(3), 77-95.
- 김성희, 정승호, 김병연(202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 형성요인. *비교경제연구*, 29(1), 25-55.

- 김혜숙, 오승섭(1999). 북한 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 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 *心理科學*, 8(1), 1-22.
- 권속도(2018).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통일연구*, 22(1), 71-108.
- 고혜진, 민기채, 박정순, 한경훈, 김예슬(2018). 고령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제도 활용의 제약요인 및 접근성 제고 방향. *한국사회정책*, 25(1), 161-194.
- 남보영, 신자현(202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자살 생각과 시도의 위험요인 : 자살의 대인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0(2), 90-111.
- 노인규, 강경선(2019). 노인 여성들의 합창음악치료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예술과 인간*, 5, 43-64.
- 문승일, 송영민, 이광옥(2015). 북한이탈주민의 여가 활동과 사회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9(3), 19-28.
- 박연수, 김영미(2020). 아마추어 합창단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연구*, 28, 161-181.
- 박소희, 홍진표, 안지현, 이혜린, 김명현, 장혜인. (2021).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의 종단적 추세: 외로움,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한 4년 추적 연구. *대한불안학회지*, 17(2), 49-58.
- 배재운(2020). 한국 및 OECD 회원국의 활동적 노년지수. *한국체육학회지*, 59(6), 379-390.
- 배재운, 최보라(2020). 초고령사회 액티브 에이징 (Active Aging)을 위한 필수요건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9(4), 235-250.
- 송영민, 이광옥(2013).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 여가와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27(2), 97-113.
- 안혜영(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 16(2), 145-171.
- 양계민, 정진경(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 97-115.
- 양문수, 이우영(2019).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에 대한 비교 연구: 상호 간 및 내/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감정/태도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5(1), 65-103.
- 이광옥(2013).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 여가와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27(2), 97-113.
-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2011).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統一問題研究*, 23(2), 147-194.
- 이종선(2015). Healthcare Services 개발을 위한 Active Aging 특성연구. *디자인지식저널*, 34, 375-384.
- 이현정, 강빈나, 김수지(2020). 여성 노인 합창단원의 합창단 유형에 따른 청지각적 음성평가 (GRBAS) 및 음성관련 삶의 질(K-VRQOL) 비교. *말소리와 음성과학*, 12(2), 51-61.
- 윤영배, 유준호(2015). 한국의 시니어 합창 활동이 건강, 여가태도, 여가만족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4, 17-31.
- 엄태완(2007).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향상 전략: 난민과 이주민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統一政策研究*, 16(2), 173-197.
- 염유식, 김여진(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45(2), 91-129.
- 오정수(2017). 스포츠복지와 Active aging의 사회적 함의. *한국체육학회지*, 56(5), 57-72.
- 장명선, 이애란(2010).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취업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2(2), 275-319.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

- 상담심리학회, 17(2), 467-484.
- 차현일(20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정책 목적 재설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統一과 法律*, 26, 32-68.
- 통일부(2022).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검색일: 2022.12.20.
- 허성호, 최영진, 정태연(200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 *스트레스 研究*, 16(4), 379-386.
- Glover, T. D. (2004). "The "community" center and the construction of citizenship". *Leisure Science*, 26, 63-83.
- Heo, J. M., Lee, S. H., Im, S. A., & Bae, J. Y. (2022). "When I Sing, I Feel Peaceful": Experiences of Older Choral Singers From North Korea. *Gerontology Research from Across the Globe*, 41(1), 245-252.
- Hibber, D. K. & Shiness, K. J. (2002). Interracial Couples' Experience of leisure: A Social Network Approa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2), 135-156.
- Iso-Ahola, S. E., & Park, C. J. (1996). Leisure-Related Social Support and Self-Determination as Buffers of Stress-Illness Relationship.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3), 169-187.
- Koh, B. S. (2016). The Perception of Active Aging and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4, 15-36.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 Stebbins, R. A. (2001). Serious leisure. *Society*, 38(4), 53.
- Yeo, H. C. (2015). A study on the adaptation to South Korea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focus in depth interview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age 40s.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18(3), 325-359.